

HRI 한반도 평화지수 : 대화 단절 장기화로 피로감 고조

홍순직·이혜정 /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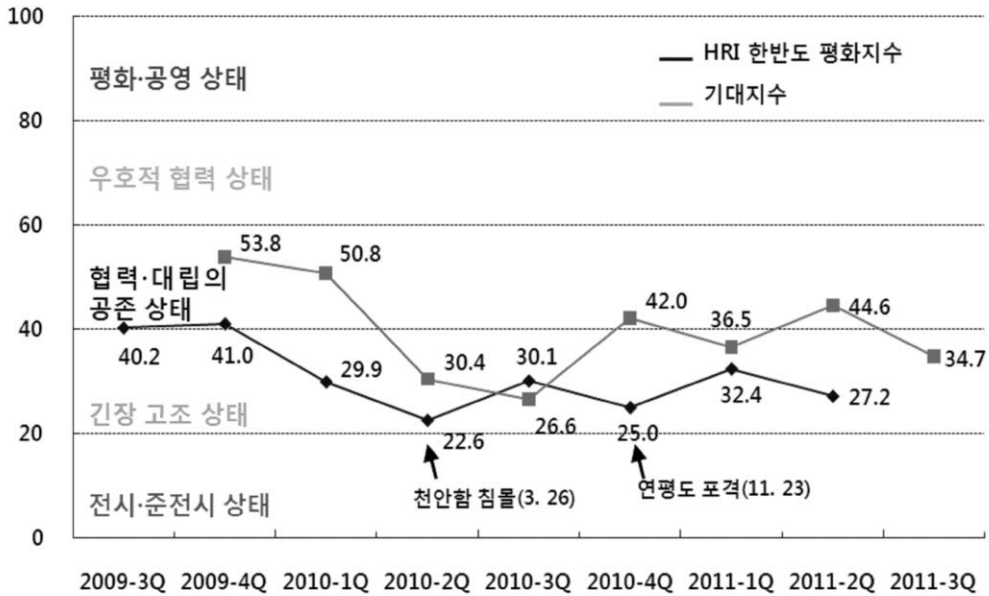
2011-2분기 HRI 한반도 평화지수 조사 결과

2분기 한반도 평화지수는 북한의 대남 비난 공세 고조와 남북 당국간 대화 단절의 장기화로 하락세로 반전하였다. 2분기 HRI 한반도 평화지수는 27.2를 기록하여, 연평도 포격 사건 직후 수준으로 악화되었다. 1분기 32.4를 기록했던 한반도 평화지수는 전기 대비 5.2p 하락한 27.2를 나타냄으로써 한반도에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대지수도 전기 대비 9.9p 대폭 하락하면서 전문가들의 2011년 3분기 남북 관계에 대한 기대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3분기 기대지수는 34.7로 나타나 남북 관계가 '협력·대립의 공존 상태'에 진입할 것이라는 2분기 기대감에서 벗어나, 다시 '긴장 고조 상태'로 악화되면서 혼조세를 보였다.

특징 분석

주관적·객관적 지수가 모두 하락세로 반전했으며, 특히 다음 분기에 대한 기대지수가 대폭 하락하였다. 2분기 전문가평가지수는 18.2, 정량분석지수는 36.1를

〈 2009~2011 HRI 한반도 평화지수의 추이 〉



기록함으로써 지난 분기보다 모두 하락하였다. 지난 분기에는 전문가평가지수와 정치·군사 부문의 이벤트지수가 큰 폭 상승하였으나, 이번 분기에는 모든 부문의 지수가 하락하였으며, 특히 경제 및 사회·인도적 부문의 교류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전문가들의 기대지수는 연평도 사건 직후인 2010년 4분기 36.5보다도 낮은 34.7을 기록함으로써 3분기 남북관계의 불안을 예고하였다. 이는 북한이 예비군 훈련장의 김 위원장 일가 표적 사격 훈련에 대해 거세게 비난하면서 남북 대화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주장하고, 정상회담 사전 접촉 유출 및 금강산 재산 정리 주장 등 강경한 입장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관적 평가와 객관적 평가간 격차는 여전한데, 전문가들이 현 상황을 실제보다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평가인 전문가평가지수와 객관적 평가인 실적치로 보는 정량분석지수 사이의 격차(| 전문가평가지수 - 정량분석지수 |)는 17.9로, 지난 분기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는 경제·사회·인도적 지원 부문의 교류지수가 큰 폭 하락한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 2009~2011 HRI 한반도 평화지수 조사 결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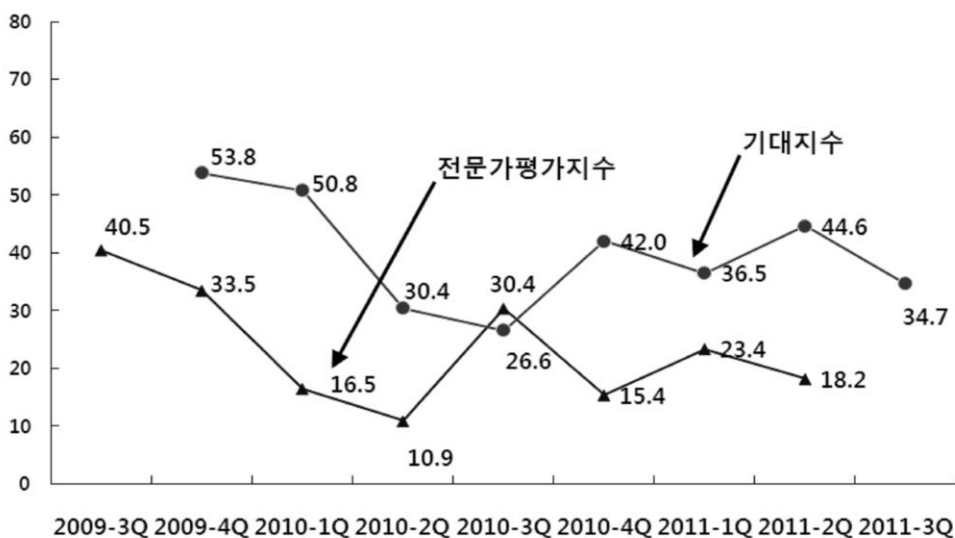
구분	HRI 한반도 평화지수					기대지수
	전문가 평가지수	정량분석지수			교류지수	
		이벤트지수				
'11-2분기	27.2 (▽5.2)	18.2 (▽5.2)	36.1 (▽5.2)	45.2 (▽2.8)	26.9 (▽7.7)	34.7 (▽9.9)
'11-1분기	32.4 (▲7.4)	23.4 (▲8.0)	41.3 (▲6.8)	48.0 (▲15.2)	34.6 (▽1.6)	44.6 (▲8.1)
'10-4분기	25.0 (▽5.1)	15.4 (▽15.0)	34.5 (▲4.7)	32.8 (▽2.1)	36.2 (▲11.6)	36.5 (▽5.5)
'10-3분기	30.1 (▲7.5)	30.4 (▲19.5)	29.8 (▽4.6)	34.9 (▲1.6)	24.6 (▽10.8)	42.0 (▲15.4)
'10-2분기	22.6 (▽7.3)	10.9 (▽5.6)	34.4 (▽8.9)	33.3 (▽9.5)	35.4 (▽8.4)	26.6 (▽3.8)
'10-1분기	29.9 (▽11.1)	16.5 (▽17.0)	43.3 (▽5.2)	42.8 (▽6.5)	43.8 (▽3.9)	30.4 (▽20.4)
'09-4분기	41.0 (▲0.8)	33.5 (▽7.0)	48.5 (▲8.7)	49.3 (▲1.2)	47.7 (▲16.2)	50.8 (▽3.0)
'09-3분기	40.2	40.5	39.8	48.1	31.5	53.8

주 : ()내는 지난 분기 대비 증감을 표시(p)

항목별 평가

전문가평가지수는 '전시 및 준전시 상태'로 악화되었으며, 정량분석지수도 교류지수의 대폭 하락으로 '긴장 고조 상태'로 악화되었다. 전문가평가지수 (2011년 1분기 : 23.4 → 2011년 2분기 : 18.2)는 총 68명의 전문가를 설문조사한 결과, 이들의 남북 관계에 대한 평가는 지난 분기의 '긴장 고조' 상태의 초기 수준에서 '전시 및 준전시' 상태로 재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분기 전문가평가지수는 전기 대비 5.2p 하락한 18.2를 기록하면서, 연평도 사건 발생 시기인 2010년 4분기 15.4와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이는 북한이 뼈라 살포 등에 대한 반발로 대남 위협의 수위를 높이면서 MB의 베를린 선언에 강력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등 남북 당국간 대화 단절이 장기화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대지수는 전

〈 2009~2011 전문가평가지수와 기대지수의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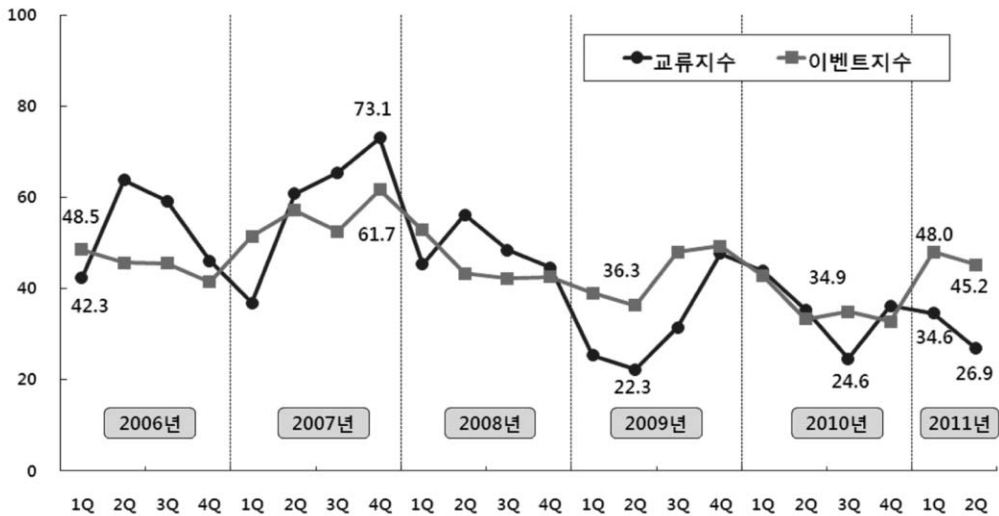


기 대비 9.9p 하락한 34.7을 기록함으로써, 전문가들의 2011년 3분기의 남북 관계 개선 기대감이 지난 분기에 비해 하락하였다. 이는 북한의 남북 정상회담 사전 접촉 공개와 새로운 금강산 특구법 제정 발표 및 금강산 재산 정리 요구 등 경색 국면 장기화 우려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2분기 정량분석지수(2011년 1분기 : 41.3 → 2011년 2분기 : 36.1)는 지난 분기의 41.3보다 5.2p 하락한 36.1을 기록함으로써, 남북 관계의 객관적 실적은 악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량분석지수 하락은 정치·군사 부문의 ‘이벤트 지수’와 경제·사회·인도적 지원 부문의 ‘교류 지수’가 모두 큰 폭 하락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벤트지수 (2011년 1분기 : 48.0 → 2011년 2분기 : 45.2)는 북한의 대남 비난과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에 대한 강한 반대 의사 표명 등으로 전 분기에 비해 2.8p 하락되었다. 특히, 북한은 일부 예비군 훈련장에서 북한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부자의 사진을 표적으로 사격 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거세게 비난하면서, 더 이상 현 정부와는 상종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한 반발과 위협을 지속해 왔다. 교류지수(2011년 1분기 : 34.6 → 2011년 2분기 : 26.9)는 전기 대비 7.7p 대

〈 2006~2011 이벤트지수와 교류지수의 시계열 추이 〉



주 : 이벤트지수는 정치·군사 분야의 변화를, 교류지수는 경제·사회·인도지원 분야의 변화를 표시

폭 하락한 26.9를 기록하여, 2010년 4분기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5.24 제재 조치가 유지되고 있을 뿐 아니라, 대북 지원은 물론 기반출한 원부자재의 반입이 마무리되면서 민간의 남북교역이 거의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2분기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은 전년동기비 각각 85.1%, 98.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향별 분석

성향 구분없이 모든 전문가들은 지난 분기보다 남북관계가 악화된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특히 중도 성향의 전문가 평가가 가장 많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향별 전문가평가지수는 보수, 중도, 진보 성향이 각각 21.6, 19.4, 16.0으로 지난 분기에 비해 각각 0.4p, 7.1p, 3.0p 하락하여 부정적 평가로 반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 성향의 전문가 평가가 큰 폭 하락한 것은 북한의 정상회담 사전 접촉 공대로 지난 분기에 기대감이 높았던 중도 성향의 전문가 상당수가 회의적인 시각으로 돌아섰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편, 진보 성향의 전문가 평가가 여전히 가장

〈 성향별 전문가평가지수 〉

구 분	보수 성향		중도 성향		진보 성향		전문가 평가지수	기대지수	HRI 평가지수
	현재	예상	현재	예상	현재	예상			
'11. 2분기	21.6 (▽0.4)	39.4 (▽3.6)	19.4 (▽7.1)	28.3 (▽25.0)	16.0 (▽3.0)	36.6 (▽2.3)	18.2 (▽5.2)	34.7 (▽9.9)	27.2 (▽5.2)
'11. 1분기	22.0 (▲7.0)	43.0 (▽2.4)	26.5 (▲0.8)	53.3 (▲2.3)	19.0 (▲10.1)	38.9 (▲10.2)	23.4 (▲8.0)	44.6 (▲8.1)	32.4 (▲7.4)
'10 4분기	15.0 (▽18.6)	45.4 (▽1.3)	25.7 (▽4.6)	51.0 (▲10.2)	8.9 (▽20.5)	28.7 (▽10.0)	15.4 (▽15.0)	36.5 (▽5.5)	25.0 (▽5.1)
'10 3분기	33.6 (▲20.6)	46.7 (▲15.7)	30.3 (▲20.8)	40.8 (▲18.4)	29.4 (▲18.6)	38.7 (▲9.3)	30.4 (▲19.5)	42.0 (▲15.4)	30.1 (▲7.5)
'10 2분기	13.0 (▽6.0)	31.0 (▽0.3)	9.5 (▽4.5)	22.4 (▽8.2)	10.8 (▽5.0)	29.4 (▲0.6)	10.9 (▽5.6)	26.6 (▽3.8)	22.6 (▽7.3)
'10. 1분기	19.0 (▽20.7)	31.3 (▽20.1)	15.0 (▽15.5)	30.6 (▽24.0)	15.8 (▽13.9)	28.8 (▽20.0)	16.5 (▽17.0)	30.4 (▽20.4)	29.9 (▽11.1)
'09. 4분기	39.7 (▽10.5)	51.4 (▽6.2)	30.5 (▽7.6)	54.6 (▲0.2)	29.7 (▽8.1)	46.8 (▽4.9)	33.5 (▽7.0)	50.8 (▽3.0)	41.0 (▲0.8)
'09. 3분기	50.2	57.6	38.1	54.4	37.8	51.7	40.5	53.8	40.2

낮은 수치를 기록함으로써, 이들이 현 상황을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3분기 전망에 대한 기대지수는 보수 성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성향 구분없이 기대지수는 현재 평가지수보다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기대지수는 성향 구분없이 모두 하락함으로써 3분기 남북 관계 불안정에 대한 우려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이 남북정상회담 사전 접촉 공개와 금강산 자산 정리 등 대남 강경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전문가들이 다음 분기에 획기적인 남북 관계의 전환점 마련은 힘들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남북 관계 현안 설문조사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하였다. 전체 68명의 전문가 중 약 61.1%가 북한이 3차 핵

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하였다. 또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67.1%가, 연평도 포격 등과 같은 군사 도발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46.3%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특히, 북한의 3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보수 전문가들이 진보 전문가보다 가능성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 보수층은 가능성이 “높다”는 데 가장 많은 비율(66.7%)로 응답, 진보층은 “별로 없다”는 데 가장 많은 비율(52.0%)로 응답했다. 한편, 추가적 군사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수, 중도, 진보 모든 성향의 전문가들이 “별로 없다”는 데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했다.

북한 추가 도발 가능성		종합	보수	중도	진보
3차 핵실험	가능성이 매우 높다	10.4%	0%	15.0%	12.0%
	높다	50.7%	66.7%	55.0%	36.0%
	별로 없다	38.8%	33.3%	30.0%	52.0%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10.4%	4.8%	25.0%	4.0%
	높다	56.7%	57.1%	55.0%	60.0%
	별로 없다	32.8%	38.1%	20.0%	36.0%
군사 도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	6.0%	4.8%	5.0%	8.0%
	높다	40.3%	33.3%	45.0%	44.0%
	별로 없다	53.7%	61.9%	50.0%	48.0%

북한의 특구 개발 전망에 대해서는 최근 황금평과 나선 특구 개발 등 북중 경험 가속화와 관련한 북한의 특구 개발 전망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53.1%가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진보 성향의 전문가들이 많은 비율(66.7%)로 특구 개발이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 특구 개발 전망		종합	보수	중도	진보
급속도로 진행될 것		53.1%	50.0%	36.8%	66.7%
과거 사례와 같이 큰 진전없이 정체, 중단될 것		46.9%	50.0%	63.2%	33.3%

한편, 특구 개발의 북한 경제 개방 영향에 대한 설문에서는 전문가들의 61.8%가 “북한의 폐쇄적인 모습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특히, 보수 성향의 전문가들 상당수(76.2%)가, 북한의 개혁·개방 변화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변화 가능성	종합	보수	중도	진보
북한 경제 개방 및 자본주의 시장경제 도입 확산	38.2%	23.8%	38.1%	52.0%
큰 변화 없을 것	61.8%	76.2%	61.9%	48.0%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에 대해 전문가들의 절대 다수는 인도적 사안과 정치·군사적 갈등과는 분리하여, 대북 식량 및 의약품 지원을 재개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대북 식량 지원의 경우, 전체의 92.6%가 지원 재개에 찬성하였다. ‘확실한 모니터링을 전제로 한 식량 재개’가 58.8%로 다수를 차지하였고, ‘전제조건 없이 재개’도 33.8%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보수 성향의 전문가들도 무조건 재개와 확실한 모니터링 전제의 식량 재개에 높은 비율(81.0%)로 응답함으로써 인도적 지원에 찬성을 표시하였다. 한편, 진보 성향의 전문가들은 전제 조건 없이 식량 지원을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52.0%)를 차지하여, 정치적 갈등과는 별개로 대북 인도적 지원 가운데 식량 지원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북 식량 지원 재개	종합	보수	중도	진보
전제 조건 없이 식량 지원을 재개	33.8%	14.3%	33.3%	52.0%
확실한 모니터링이 전제될 경우 식량 지원 재개	58.8%	66.7%	66.7%	44.0%
현 상황에서 식량 지원을 재개해서는 안됨	7.4%	19.0%	0%	4.0%

또한, 대북 식량 지원에 ‘소극적 입장’을 보인 전문가들도 절대 다수(93.9%)가 영유아 등 취약 계층을 위한 분유 및 의약품 지원에 대해서는 재개가 시급하다고 응답하였다. 소극적 입장을 보인 전문가들은 “확실한 모니터링이 전제될 경우 식량 지원을 재개해야 한다”(40명)와 “현 상황에서 식량 지원을 재개해서는 안된다”(5명)고 응답한 전문가 45명을 의미한다.

HRI 한반도 평화 지수

취약 계층 분류 및 의약품 지원	종합	보수	중도	진보
지원 재개 필요	93.9%	94.4%	100%	86.7%
현 상황에서 어떠한 인도적 지원도 재개돼서는 안됨	6.1%	5.6%	0%	13.3%

북한의 금강산 재산정리 조치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 정부는 기업의 자율적 판단 하에 임대·양도·매각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수(75.0%)를 차지하였다. 진보 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기는 했으나, 보수·중도·진보의 성향 구분 없이 많은 전문가들은 기업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북한의 금강산 재산정리 조치 발표에 대해 정부는 새로운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인정할 수 없고, 5.24 제재 상황에서 임대·양도·매각 등을 허용하는 것도 정책 기조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금강산 재산정리 조치 발표 정부 대응	종합	보수	중도	진보
기업의 자율적 판단 하에 임대·양도·매각 조치	75.0%	66.7%	66.7%	88.0%
기존 대북 정책 기조 위배되므로 임대·양도·매각 조치 불허	25.0%	33.3%	33.3%	12.0%

또한, 기존 대북정책 기조에 위배되므로 임대·양도·매각 등을 불허해야 한다고 응답한 전문가들(17명) 중에서도 절대 다수(85.2%)는 정부가 기업 손해에 대해 보상해줄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정부 보상 필요	종합	보수	중도	진보
정부는 기업의 손해에 대해 보상해줄 필요	85.2%	70.0%	100%	87.5%
정부는 기업의 손해 보상해줄 필요 없음	14.8%	30.0%	0%	12.5%

한편, 금강산지구 내 남측 정리에 관한 협의 과정에서 이번 기회에 전향적으로 관광 재개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한다는 의견도 59.7%를 차지하였다. 기타 의견으로는 관광 재개 논의는 북한의 태도 변화 여부와 관련하여 생각해야 한다는 의

금강산 관광 재개 허용 여부	종합	보수	중도	진보
이번 기회에 전향적으로 관광 재개 논의 시작	59.7%	33.3%	60.0%	80.0%
북한의 관광 재개 3대 조건 미이행 등으로 논의는 시기상조	29.9%	42.9%	35.0%	16.0%
기타	10.4%	23.8%	5.0%	4.0%

결과 북한의 일정 수준의 사과는 도출되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기되었다.

한편,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의 남북관계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경우, 전문가들은 반드시 언급되어야 할 내용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를 최우선 과제로 주문(20.4%)했다. 전문가들은 쌀, 비료, 의약품 등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를 최우선 과제로 주문하면서도, 북한의 비핵화 촉구(16.9%) 등 정치적 부문의 접근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산가족 상봉 추진(14.4%)도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정치적 부문에서는 북한 비핵과 촉구하고 천안함 및 연평도 사과 요구(7.5%), 남북정상회담 개최 추진(7.5%) 등을 강조하였다. 경제적 부문에서는 금강산, 개성관광의 재개(13.4%), 5.24 조치의 해제로 남북교역 재개(10.4%) 등을 강조하였다. 사회·문화 부문에서는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 추진을 강조하였다. 기타로는 통일세 등 남북한 통일 대비에 대한 언급(5.0%) 및 6.15 및 10.4 선언에 대한 언급 등을 주문했다.

분야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8.15 경축사 제안	비중
사회문화 (34.8%)	쌀, 비료, 의약품 등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	20.4%
	이산가족 상봉 추진	14.4%
정치외교 (31.9%)	북한의 비핵화 촉구	16.9%
	천안함 및 연평도 사과 요구	7.5%
	남북정상회담 개최 추진	7.5%
경제 (23.8%)	금강산·개성 관광 재개	13.4%
	5.24 조치의 해제로 남북교역(일반교역) 재개	10.4%
기타 (9.5%)	통일세 등 남북한 통일 대비에 대한 언급	5.0%
	기타(6.15 및 10.4 선언에 대한 언급 등)	4.5%


통일 의식과 통일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남북 경색이 중장기화되면서 전문가들의 통일 의식이 점차 소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 경색이 중장기화되면서 전문가들의 통일 수준이 ‘현 상태 유지’나 ‘자유 왕래’ 입장은 늘어났다(2010년 20.3% → 2011년 32.8%). 반면에 ‘완전한 통일’을 선호하는 비중은 감소(2010년 34.8% → 2011년 26.9%)하였다. 전문가들은 ‘1국가 2체제의 평화공존’(32.8%)과 ‘자유로운 왕래’(31.3%) 수준의 통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국가 2체제의 평화공존’과 ‘남북이 하나되는 완전한 통일’에 대한 선호도가 2009년과 2010년 조사에서는 각각 64.8%, 66.7%로 나타났으나, 이번 조사에서 59.7%로 감소하였다.

통일 수준	2011.7	2010.10	2009.7
현 상태도 괜찮다	1.5%	0%	2.3%
자유로운 왕래 수준	31.3%	20.3%	29.5%
1국가 2체제 평화 공존	32.8%	31.9%	39.8%
남북이 하나되는 완전한 통일	26.9%	34.8%	25.0%
기타	7.5%	13.0%	3.4%

통일 시기에 대해서는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통일이 1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70.1%)했다. 그러나 불가능하다는 의견은 거의 없어 전문가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통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일 시기	2011.7	2010.10	2009.7
5년 이내	6.0%	0%	8.7%
6~10년	22.4%	26.1%	27.5%
11년 이상	70.1%	70.5%	62.3%
불가능	1.5%	3.4%	1.4%

통일 비용에 대해서는 통일을 위해 연 51만원 이상 부담하겠다는 비율은 감소하고, 10만원 이하를 부담하겠다는 비율은 크게 증가하였다. 연 10만원 이하의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전문가 비율이 급증(2010년 25.7% → 2011년 41.2%)하였다. 이는 남북경색이 중장기화되어 전문가들의 통일 의식이 전반적으로 소극적으로 변화하면서, 비용 부담에 대한 거부감도 더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일 시기	2011.7	2010.10	2009.7
부담하고 싶지 않음	5.9%	1.4%	4.5%
연 1만원 이하	4.4%	4.3%	1.1%
연 2~10만원 이하	30.9%	20.0%	29.5%
연 11만원~20만원 이하	17.6%	28.6%	18.2%
연 21~50만원 이하	10.3%	12.9%	14.8%
연 51만원~100만원 이하	16.2%	20.0%	31.8%
연 100만원 초과	14.7%	12.9%	